

가정 예배 모범

- 2021_01_2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권세들 위에 계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당신은 영광의 왕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누가복음 8장 26- 39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거라사의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28절)

귀신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버려두고 네 일이나 신경쓰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서 귀신들을 멸하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실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알고 있었습니디. 따라서 지금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나를 버려두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모든 악을 무찌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2) 귀신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39절)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네게...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신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원하십니다. 한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를 이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그는 온 성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거나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